

## 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평가결과요약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등급
		비계량	계량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25		B <sup>+</sup>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25		B <sup>+</sup>
	소 계	50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 기능강화	20		B <sup>0</sup>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25	14.06
	기관의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 반영)		5	4.12
	소 계	20	30	
전체 합계		70	30	

## 1. 감사의 전문성 확보

### ①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와 관련하여 상임감사의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다. 정부의 국정과제(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와 감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감사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감사전략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4대 전략 방향 33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감사전략체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상임감사의 자격증 2개 신규취득은 술선수범의 효과로 평가된다. 감사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에 구축된 e-감사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활용도 및 기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3억 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新 e-감사시스템을 재구축한 것은 바람직한 성과이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나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노력은 인정되나 제도의 실행 실적(적극행정면책 1건)이 다소 부족하다 평가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사회·경영회의 참석, 경영제언 지시사항 제도개선요구 등 적극적인 감사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은 인정되나 경영제언 실적(5건)이 다소 부족하고,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ICT 기술을 활용한 新 e-감사시스템 재구축은 긍정적으로 인정되나 사전예방감사, 도와주는 감사,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감사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등을 이용한 세련된 디지털 시스템이 다소 부족하다. 상임감사 및 감사실의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분석과 환류를 위하여 상임감사 및 감사실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성과지표는 진취적인 항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질적 평가 요소의 확대와 더불어 매년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

내외 전문가 역량을 통한 감사지원 및 전문성을 보완한 점은 인정되나 객관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감사, 성비위·사내괴롭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전문노무사 등을 이용한 외부 감사도 필요할 것이다.

②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감사실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실의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다. 감사인의 역량 및 감사품질을 강화하여 신규 자격증 8개를 취득하여 감사인 1인 평균 4.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내부감사품질평가 점수가 향상('21년 82.88점 → '22년 85.25점)된 것은 바람직한 성과이다. 우수 감사인 확보를 위하여 공모제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감사인을 유입하고 장기 근무를 위한 우대정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일반직원과 다른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높게 평가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감사인별 직무분석 및 역량평가를 통해 현 감사인으로 커버되지 않거나 소수 감사인이 커버하고 있는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커버리지 지수가 상향된 점은 인정되나, 지수가 목표대비 미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지수 상향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인의 효율적 운영 및 감사인 전출 시 감사역량 공백 메우기 위한 예비 감사인을 미리 선정하고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 학습동아리 지원 강화로 감사업무에 활용을 확대한 것은 인정되나 학습동아리 운영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임감사와 감사인의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상임감사 교육(144시간) 및 감사인 교육(평균 113시간)은 긍정적인 노력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교육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족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의 전문성 확보”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 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 ①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은 적절한가?

- 상임감사의 윤리기준 선도적 준수 및 감사인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하여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상임감사의 윤리·청렴 문화 전파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활동을 펼쳐 자회사 및 협력사 직원교육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신규 직원 청렴 토크 콘서트를 2회 주관하는 등 활동으로 자회사 및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갑질 경험이 17.7%에서 2.4%로 대폭 감소한 점은 긍정적 실적으로 인정된다.
- 둘째, 상임감사의 윤리기준 준수를 위한 술선수범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원칙을 수립하여 월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 하나인 감사 윤리성 지수의 도전적 목표 설정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절감 지표를 전년도 30% 이상으로 설정, 추진하여 전년대비 37.65%를 절감한 점은 긍정적 실적으로 인정된다.
- 셋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직 대상 청렴 리더단 신설 및 정기회의를 4회 개최함과 아울러 전 직원 대상 통합신고 모의훈련을 3회 실시하고 자회사 갑질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로 국민권익위 외부체감도 점수가 2020년 대비 8.10점이 향상된 96.30점을 받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넷째, 감사인 직무교육 강화를 위해 감사전문교육을 감사인 당 12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윤리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인 갑질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평가를 수행하여 감사수용도와 감사품질 만족도가 각각 전년도 대비 개선된

4.74점과 4.19점을 획득한 점도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상임감사의 윤리기준 준수를 위한 솔선수범 조치로 상임감사 월별 업무추진비 100% 공개,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37.6% 절감 등의 실적이 있으나 타 기관에 비해 아직도 다소 부족하므로 선도적인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임감사 본인의 윤리기준 준수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솔선수범 노력이 요구된다.
- 둘째, 감사 윤리성 지수 고도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감사윤리 실천지수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하위 지표 가운데 감사인 윤리평가 아래 만족도 항목 20점 만점에 17.1점으로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권장한다.
- 셋째, 전년도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감사윤리 실천지수의 도전적 목표설정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 절감지표를 선정해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나 감사윤리 실천지수가 2022년에는 97점으로 임계치에 도달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②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의 활동과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경영진과 감사부서의 협업 추진체계의 구축과 현장경영 및 내부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주도, 윤리규정의 정비와 청렴·반부패 교육 강화 등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비리 내부고발자 및 성비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인 안심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청렴·반부패 익명소통 채널인 ‘윤리톡’을 운영하여 3건 상담하고, 비위취약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 4건을 접수하고 금품 등 수수사례를 반환토록 하는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시도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판단된다.

- 둘째, 신고제도 인지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모의신고 훈련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3회 실시하고 신고제도 인지도와 신고의향을 조사하여 98%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받은 점 등은 긍정적 실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모의훈련 시 7가지 유형에 대한 유사사례를 제시하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이다.
- 셋째, 기관 윤리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렴교육 만족도가 2021년도 84.7점에서 95.4점으로 10.7점이 향상된 점은 고무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 넷째, 윤리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반부패·청렴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업무중복이 70% 이상인 윤리경영부서와 반부패·청렴부서를 일원화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윤리경영표준모델 이행수준을 진단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내부규정 8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실적이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익명신고 보호체계를 정비하면서 레드위슬 헬프라인 신고 실적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 강구를 위한 노력도 추가적으로 경주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조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사건 발생 후 수년 뒤 또다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분리조치에 대한 인사 관리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중장기 관리 방안을 명문화하는 윤리규정 고도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셋째, 윤리규정 고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서 공익신고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후 보복금지 규정 및 이에 대한 위반자 징계 규정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규정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수준 감경불가 원칙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부패 및 비리 사건 등 주요 비위행위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성원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을 적극 견인해야 할 것이다.

### ③ 감사의 독립성 확보노력은 적절한가?

-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고 제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감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실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한 실적은 고무적이다. 또한 감사인 승진 시 불이익을 해소하여 감사실 승진자가 전년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으며 기관 내부통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장 상호 협력 선언문 발표 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 둘째, 상임감사가 감사 활동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되는 국제감사직무수행기준(IPPF)에 의한 독립성 지수평가에서 전년대비 1.7점 상승한 97.5점을 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감사원 권고치를 상회하는 정원대비 3.75%의 감사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예산 요구액이 100% 반영되고 내부 전산망 접근권한을 100% 확보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 셋째, AI기반 감사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시스템과 연계되는 API(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 네이버 하이퍼크로바X 등 한국어에 특화된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연금제도 안내, 예상퇴직급여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넷째, 체계적 경영경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채용, 입찰 등 과정에서 감사인이 의무입회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e-감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e-감사시스템에서 경영제언 이행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경영견제지수를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인 실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권장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AI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공공기관의 감사환경도 점차 AI기반 자동감사로 이행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AI기반 자동감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2년에 챗봇을 도입하고 2023년에는 RPA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포렌식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타 기관 대비 다소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AI기반 감사시스템을 위한 로드맵과 인력 및 예산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경영견제지수가 목표 대비 2.2점 초과달성한 92.2점을 획득한 점은 실적으로 인정되나 경영견제지수의 하위 항목 가운데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20점 배점 가운데 12.2점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셋째, 감사의 독립성 지수가 2018년 83.5점에서 2022년 97.5점으로 매년 꾸준히 개선된 점은 긍정적 실적으로 인정되나 지표가 임계치에 도달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④ 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인정한다. 사회적 책무 위반 점검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고 예방·점검활동 등 재발방지 강화로 사회적 책무 견인지수가 목표에 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 ESG 경영 현황에 대한 과제 수행 내역과 개선점을 평가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경영 위원회를 운영한 성과는 우수하다. 사회

적 약자 배려 및 평등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계획 단계의 일상감사, 추진단계의 자발적 참여, 평가단계에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높게 평가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무 완수 및 정부 경영지침 준수를 위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주기적으로 국민 관심사 및 정부방침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리스크 프로파일을 재식별하고 체크리스트 재구성 및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판단된다.
- ESG 경영에 대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사회적, 국가적 인식 변화로 기업에 대한 ESG 경영의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기관의 ESG Risk 및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평등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 노력은 인정되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의 세심한 경영지원 노력도 필요하겠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지표에 대하여 “B<sup>+</sup>”로 평가한다.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 ①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과 관련하여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다. 중장기 감사전략에 따른 로드맵과 구체적인 핵심과제, 실행과제의 제시는 내부통제에 대한 단계별 방향성을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장기 위험 대응을 위한 현안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위험평가 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중 방어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재정상 조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감사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분석에 있어서 기관 고유의 특성과 고유리스크를 반영하여 기관의 감사환경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안과제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적 진단활동과 사후적 점검 및 관리 단계를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위험에 대한 우선순위 등 정량적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②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와 개선노력은 적절한가?

-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및 개선노력과 관련하여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다. 기관의 고유업무와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운영효과를 제고했다고 평가하며, 핵심위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점검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고유위험요소 중 횡령발생 부분에 대하여 횡령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부정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영건제지수와 더불어 신설지표인 내부통제효과지수의 실적 90점 이상은 장기적 측면에서 지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중장기적 전략과 연계하여 지표의 세부항목 및 항목별 기준 점수 등의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 기준인 New Coso 모델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취약부문을 도출

하고, 제도개선 등 내부통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③ 내부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은 적절한가?

- 내부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과 관련하여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부문별로 구축하는 노력을 하였고, 매월 비위행위 등 자가점검 정례화, 신입직원의 예방교육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제고한 공유방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결과에 대한 사례화 등을 통한 공유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하는 등과 같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노력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감사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감사만족도와 감사수용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불어 감사제도 인식도 등 설문조사, 윤리지원효과성 조사 등 다각도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감사계획의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부기관에 의한 수감부서 대상 심층면담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구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④ 방만경영 예방, 적발을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방만경영의 예방, 적발을 위한 감사와 감사부서의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다. 첫째, 부실한 연기금 운영과 비효율적 경영관리 차원에서 8가지 세부 방만경영 유형을 재정립하고 연기금 관리·경영관리·재발방지 등 3가지 전략방향 하에서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로서 '방만경영 근절지수'를 설정하는 등 방만경영 예방·적발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 둘째, 취약분야별 방만·부패 위험을 도출하고 감사정보시스템 활용 현업 체크리스트 점검, 방만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실태 점검, 비위신고 통합신고 센터 모의훈련, 복무/법인카드 등 선제점검 등과 같은 방만경영 예방·적발 및 재발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증권 위탁운용자금 회수지연 건 시정(약 192억원), 방만경영 관련 중대 위법 사항 발생 0건, 방만경영‘근절지수 목표 달성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이 인정된다.
- 다만,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방만경영의 예방, 적발, 재발방지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복합지표’인 방만경영 근절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세부지표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기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논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개별 지표의 중요도가 다르다면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투입·과정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출·결과 지표의 가중치가 더 높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복합지표와 하위 세부지표 간 명확한 연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세부 지표 간에 중복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전체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지표정의서’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지표의 의미, 성과지표 설정의 합리성 여부 및 목표치의 도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의 기준치 및 목표부여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기관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계량목표 부여 방식을 준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통제 기능강화” 지표에 대하여 “B<sup>0</sup>”로 평가한다.